

번호: PO-EP-037					
제 목	스키어와 스노우 보더의 손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kiing and Sonwboarding Injuries				
저 자 및 소 속	장우성1), 김순덕2), 이제숙3), 이준영2), 이원진2) 1)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Woosung Chang1), Soonduck Kim2), Jesuk Lee3), Juneyoung Lee2), Wonjin Lee2) 1)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3)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분 야	역 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경제 발달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의 시작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레저 스포츠가 발전하고 있다. 특히 겨울 스포츠인 스키와 스노우 보드의 인구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스키장 이용자들 대부분이 스키와 스노우 보드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부족, 안전장비 준비의 미비로 인해 손상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키어와 스노우 보더들의 손상의 유병률, 손상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들과 손상 원인, 종류, 부위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사고예방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p> <p>방법: 강원도에 위치한 스키장 4곳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스키어 259명과 스노우 보더 114명의 37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부상'을 라이딩 중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이 중 병·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이상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만을 '손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2.0을 이용하여 그룹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손상, 안전교육 및 장비는 Chi-squared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했고, 이 결과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 스키어의 경력, 수준, 슬로프, 내장 횟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스키어와 스노우 보더의 손상 유무별로 안전 수칙 평균 점수는 T-test를 사용하였다.</p> <p>결과: 스키어의 부상률은 33.2%, 손상률은 25.5%였고, 스노우 보더의 부상률은 46.5%, 손상률은 34.2%로 스키보다 더 높았다. 스키어의 경우 5-9년의 경력(P=0.012), 수준이 상급(P=0.002), 슬로프는 상급을 이용하는 경우(P=0.002), 내장 횟수가 15-19회 이상으로 많아질 경우(P=0.004) 손상이 많았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한 시즌 내내 스키장에 상주하는 스키어 집단의 경우 1-4회 내장하는 스키어 집단에 비해 손상 가능성이 4.69배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스노우 보더의 경우, 교육의 경로가 동호회나 가족과 같이 비전문적인 경로를 통할 때 손상이 더 많았다(P=0.027). 스키와 스노우 보더 모두 개인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대여 장비일 때 손상이 많았다(P=0.040). 스키어는 다리 손상이 40.9%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팔 18.2%이었다. 이에 반해 스노우 보더는 팔 35.9%에 손상이 가장 많았고, 머리의 손상도 15.4%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P=0.033).</p> <p>결론: 스키어와 스노우 보더의 손상 발생에는 안전교육이나 장비착용 등과 같이 개인적인 특성도 많은 영향을 주지만 스키장 환경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개인과 환경조건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p>					